학령기 아동의 우정관계 개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ception of Friendship in Korean Children of School Age

이 주 옥**
Lee, Ju 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mponents in friendship as reported by Korean children of School age. Specially, four major aspects of friendship - definition of friendship, friendship formation, friendship expectation, and friendship termination were explored.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600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Grades 1 through 6, 50 males and 50 females at each grade level. Based on Bigelow (1977) five open - ended questions were administered. First and second graders were interviewed individually while 3rd-6th graders replied to a questionnaire in class. For content analysis, responses of each child were coded into 22 categories and each category was assigned a score from 1 to 4 according to its frequency. The data were analyzed by factor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four major aspects of friendship in Korean children of school age were found to consist of four different factors. DEFINITION OF FRIENDSHIP was found to consist of the factors; 1) reciprocity of liking vs. helping 2) global evaluation vs. helping 3) sharing and 4) common activities. FRIENDSHIP FORMATION was found to consist of the factors; 1) situational effects vs.complex evaluation2)structural dimension vs.common activities3)

---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4년 12월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분임.
** 포항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전임강사

helping and4) staring. FRIENDSHIP EXPECTATION was found to consist of the factors; 1) mutuality 2) common activities vs. loyalty & commitment 3) exclusive - dyadic activities vs. admiration (character) and 4) interactive altruism. FRIENDSHIP TERMINATION was found to consist of the factors; 1) physical separation vs. disappointment (character) 2) conflict 3) physical separation vs. psychological dimension and 4) general altruism.

Ⅰ. 문제의 제기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고대로부터 우정(friendship)은 인간의 생애 발달을 통한 인간관계중 가장 공통적인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이미 B.C. 300년경에 Aristoteles는 '친구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상고한 바 있으며 유용성, 즐거움 및 미덕의 3가지 특징적 기능으로 친구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Berndt, 1981; Reisman & Shorr, 1978; Selman, 1981).

이러한 인간관계 형성을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유아가 성인으로 성장·발달함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의 범위 및 접촉빈도가 확대·증가하고 그들의 우정관계도 안정되어 간다(구필숙, 1984; 김성태, 1980; 윤 진, 1984; Asher, 1977; Mannarino, 1980; Rubin, 1982; Shantz, 1983). 즉, 생의 초기에 주요 양육자인 어머니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던 유아는 점차 주변인물과 접촉하게 되고 그 범위를 가족구성원, 가족의 타인 및 동료등으로 확대시켜간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여성의 취업, 형제수의 감소등으로 인한 가족구조 및 역할의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조기교육이 강조 확대됨에 따라 현대에는 동료관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이효재·조 형, 1976; Thornton & Freedman, 1979).

동료관계의 중요성은 여러 학자에 의해 강조된 바 있다. Hartup(1978)은 동료의 기능을 사회화대리자(socializing agent)로서 제시하고, 구체적 내용으로 "다양한 사회적 행동의 형성을 강화하고, 행동수정에 효율적인 수단이 되며, 동기 및 인지적 변화와 그 확장에 기여한다"고 하였다(p.136). 또한 Hartup(1980)은 개인간의 관계에 대한 개념을 '아동의 두가지 상이한 사회세계(two social world of ch-

ildhood)'로 제안하고, 그 내용을 1) 성인-아동의 권위·권력 위계적 관계와 2) 동등한 권력관계로 간주되는 동료세계의 두가지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즉, 부모-아동 관계에서 아동이 일종의 사회적 위계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면, 또한 아동들은 동료관계를 통하여 광범위한 사회적 상황에서 대등한 입장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료관계는 가족과의 경험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아동 자신에 대한 의식 및 사회적 현실감을 발달시키도록 돕는다(Berndt, 1982 ; Rubin, 1982 ; Serafica, 1982). 이렇게 볼 때 성인이나 나이많은 형제와의 상호작용이 동료와의 경험을 대신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료와 부모·형제는 서로가 대신하기 힘든 상호보충적 역할로써 중요하게 기능한다고 하겠다(Cowan, 1984 ; Rubin, 1982).

특히 친구는 많은 동료중에서도 의미있는 타자로서 기능한다. 자아중심성이 특징인 학령전기의 아동들은 대부분 부모나 나이많은 형제들에게 물질적 및 비물질적 도움을 받으며, 아동 스스로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지속시켜 나간다기보다는 타인의 충성심에 의해 관계를 맺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이 국민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부모에 대한 의존성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동료를 대등한 입장에서 지각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타주의 및 충성과 헌신으로 우정관계를 지속시켜 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정은 동료관계의 결정체로 취급되어질 수 있다(Damon, 1977 ; Mannarino, 1980). 우정은 또한 자기수용, 신뢰, 친밀감을 줄 뿐 아니라 때로는 불안정, 질투, 갈등, 분개등을 유발함으로써 이후의 대인적 적응에 대한 기술을 습득케 한다(Kurdek & Krile, 1982 ; Rubin, 1982 ; Shaffer, 1979).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사회적 세계에 대한 이해, 그들의 사회인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Berndt, 1981). 아동의 우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체계적 이론의 정립을 갖추지 못한 채, 다만 아동이 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숙한 대인관계의 형성·유지와 또 그러한 요인들간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개념의 발달적 경향위주로 행해져 왔다(Hartup, 1983 ; Mannarino, 1980).

일부 연구자들은(Asher, 1977 ; Gottman, 1983 ; Hartup, 1978 ; Oden, 1982 ; Rubin, 1982 ; Serafica, 1982) 생의 초기 우정관계가 이후의 사춘기 및 성인기의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적응을 예언하는 발달적 지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달과정중 아동이 겪는 우정관계 개념에서의 변화는 질적으로 괄목할 만 하며, 이러한 변화에 있어 성차를 밝힌 연구들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료상호간의 인기도를 자아개념, 학업성취, 성격특성, 사회적 행동 및 양육태도 등과 관련시켜 다룬 연구들은 있으나(김청옥, 1977; 사동진, 1982 ; 서용선, 1980 ; 안진석, 1981) 아동의 우정관계에 대한 개념 및 관련변인들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정관계의 개념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아동의 우정에 대한 정의, 우정관계의 형성원인, 친구에 대한 기대와 우정관계의 종결원인을 중심으로 그 구성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우정관계에 대한 정의, 형성원인, 친구에 대한 기대, 우정관계의 종결원인은 각각 어떤 요인들로 구성되는가?

2) 아동의 우정관계와 관련된 각 구성요인들은 서로 상이한 양상을 보일 것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우정관계의 정의

사회인지의 한 영역으로써 우정관계는(Berndt, 1981) 아동기동안 동료간의 중심적 사회관계인 바(Damon, 1977 ; Hartup, 1983), 사전(이희승, 1982; 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 1973)에서는 친구 및 우정에 대하여 '오래 두고 가깝게 사귄 벗', '애정과 존중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애착하는 것(one person's attachment to another through affection and/or esteem)'이라 정의하고 있다.

Hartup(1978, 1983)은 우정관계를 애정·관심·흥미 및 정보를 공유할 뿐 아니라 타인과 접촉을 유지하는 이원적이며 독특한 애착관계로 정의했으며, 윤진(1984)은 각자의 개인적 특성과 수준에서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비공식적이며 친밀한 관계로 정의하므로써 우정의 이원적(dyadic)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Lowenthal, Thurnher와 Chiriboga(1975)는 우연히 아는 지인관계, 우호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관계, 우정관계 및 애정관계라는 4가지 형태의 이원적 관계가 가능하다고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서도 우정관계를 관련된 두 사람이 계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자신을 그 관계에서 중요한 구성원으로 여기는 자발적이고도 독특한 이원적 관계라고 지적하였다.

Damon(1977)은 좋아함(liking)을 우정관계의 기본요소로 간주하였으며 우정관계를 '좋아함'으로 특성지워지는 인간관계로 보았다. 즉 친구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며, 서로 이해하고 사적(私的)인 생각을 공유할 뿐 아니라 감정·비밀을 이야기하는 등 심리적 문제의 해결을 돕고 심리적 고통이나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하는 지속적이며 양방적인 관계이다.

'상호성 (reciprocity)'을 우정의 필수적 요소라고 본 Mannarino(1980)는 한 아동이 다른 사람을 향해 표현하는 애정·존중이 상호적일 때에만 그 개인은 우정을 갖는다고 하면서 단짝, 친구, 좋아함, 싫어함, 적수와 같은 개념들이 우정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 우정관계는 강한 상호관계 즉 상호성, 균형, 애정, 친밀감뿐 아니라 어떠한 혜택을 친구와 함께 나누려는 시도등으로 특성지을 수 있다 (Newcomb, 1982). 우정관계의 가치를 분석·파악함으로써 우정관계의 기본요소를 제시한 Wright(1969)는 우정의 공통적 가치로 자극가치, 유용성 및 자아지지의 3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다.

Rubin과 Wright를 인용하여 우정과 애정(romantic love)을 구별한 윤진 (1984)은 비록 이 둘이 대인간의 매력이란 측면에서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하여 친밀하고 깊은 인간관계라는 공통점을 가질지라도, 유친적이고 의존하려는 욕구, 매력관계의 유지기간, 대상자의 숫자와 관련된 상호배타성 및 몰입되어 들어가는 경향등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Gottman(1983)은 Hartup(1975)을 인용하여 동료수용의 결과가 우정관계 형성과 동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써 사회적으로 수용받는 것과 우정관계의 구분을 주장한 Mannarino(1980), 특정 친구의 선택과 우정을 구분한 Master와 Furman (1981)의 주장등과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적 고립아와 경시아의 교정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에서 동료로부터 수용받을 수 있는 사회기술을 가르친다고 하여 아동의 우정관계가 반드시 증진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또한 Master와 Furman(1981), McGuire와 Weisz(1982)도 우정관계와 인기도를 구별하였는데 인기도는 동료집단에 의해 선호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반면, 우정관는 한 특정한 동료로부터 선호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비록 인기가 없더라도 친구를 갖는 것이 가능하다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우정관계를 한마디로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성숙 및 발달단계에서의 상이한 경험에 의해 영향받는 다양한 수준의, 복합적 차원의 개념이라 하겠다(Duck & Spencer, 197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관계는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상호의존하는 개인적 수준의 관계라는 정의로 압축될 수 있다.

2. 우정관계의 기본요소

우정이란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기본요소는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또한 우정관계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고 그 분류방법 역시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나 연구자들의 분류를 토대로 우정관계의 기본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7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Furman과 Bierman(1983)은 우정관계의 기본요소로써 애정, 물질적·심리적 지지, 공유활동, 근접성, 신체적 특성 및 기타차원이라는 6가지를 포함시켰다. 그의 다른 연구(1984)에서는 국민학교 2, 4, 6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외현적이고 구체적 행동·신체상태·물리적 환경등에 기초하여 타인을 묘

사하는 경우에 이를 행동적 특성으로 구분하고, 또한 관찰된 행동으로부터 추론하여 성격특성을 묘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향적(dispositional)특성으로 대별하여 이 두 차원을 지지(support), 친밀감, 연합(association), 애정 및 유사성범주로 분석한 바 있다.

Berndt(1981)는 유치원, 국민학교 3학년,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우정관계 기본요소를 외적 특성 묘사, 심리적 태도, 놀이와 연합, 친사회적 행동, 공격성, 친밀감과 신뢰, 충성된 지지 및 신의의 8개로 범주화하였으며 Sharabany, Geshoni 와 Hofman(1981)은 이스라엘의 5·7·9·11학년이 우정관계에서 보이는 친밀성을 조사하기 위해 솔직성과 자발성, 민감성과 친구에 대한 지식, 애착, 배타성, 주기와 받기, 공유활동 및 신뢰와 충성심 등의 8개 차원을 설정하였다. Peevers와 Secord (1973)는 유치원에서 대학생에 이르는 연령범위내에서의 우정관계 차원을 묘사·기술차원, 개인적 개입의 차원, 일관성 및 깊이차원의 4가지 특성으로 구분하였으며 (Hartup, 1978인용) Hartup(1975)은 우정의 3가지 기본적 차원으로 1) 이야기하고 웃고 나누는 등의 친구와의 독특한 행동들 2) 격리를 회피하고 가까이 있으려는 욕구 및 3) 특별한 개념적·언어적 범주들로 제시하였다(Minnarino, 1980).

Kurdek과 Krile(1982)은 3～8학년 아동에 있어 우정관계의 결정요소는 그들로 하여금 공통된 생각, 감정, 동기, 의도등을 공유하게 하는 상호존중과 협동이라고 언급하였으며 Bigelow와 La Gaipa(1975, 1980)는 카나다 1～8학년의 우정관계를 친구에게 기대하는 바(friendship expectation)로 질문하고 그 반응을 21가지로 범주화하였는데 여기에는 근접성, 공유활동, 놀이, 태도·가치 및 인구학적 유사성, 공통관심, 서로 좋아함, 이타주의, 물질적 이타주의, 자아강화, 자극적 가치, 친밀가능성, 진실성, 수용, 친구의 성격특성에 대한 경탄, 충성과 헌신, 오랜 상호작용의 결과, 그리고 전반적 평가가 포함된다. 특히 Bigelow는 이러한 21범주중 연령에 따라 발달적 경향을 보이는 범주들을 모아 군집분석(cluster analysis)한 결과, 우정관계 개념의 발달을 상황적 단계, 계약적 단계 및 내적·심리적 특성을 강조하는 단계로 제시하고 이러한 연속적 개념들은 이전 개념의 대치가 아니라 통합이며 진전이라고 하였다(Bigelow & La Gaipa, 1980 ; Rubin, 1982).

대학생을 내상으로 우정관계의 요소를 연구한 Canfield와 La Gaipa(1970)는 진실성, 친밀가능성, 수용, 유용가능성, 자아강화, 존경과 경탄, 유사성, 儀式的인 사회적 교환의 6요소를 제시하였다(윤진, 1984 인용). 고등학교·결혼초기·중년 및 은퇴전 시기에 속하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Lowenthal과 그의 동료들(1975)은 우정관계의 기본요소로써 1) 경험과 활동을 공유하고 의사소통하며 행동·관심에서 유사하다고 하는 유사성차원 2) 지지·의존·이해·수용·신뢰등으로 대표되는 상호성차원 3) 친구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고 어느정도 좋아하는가를 말하는 양립가능성차원 4) 근접성 및 우정유지의 기간이라는 구조적 차원 5) 존중·학습·충고·유용성등과 같은 역할모델의 차원 및 6) 기타의 차원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와같은 학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볼 때 우정관계란 두 사람간의 자발성, 상호의존성, 자존심의 존중, 자극 및 이용가치, 그리고 인접한 거리와 같은 구조적 특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인간관계라 할 수 있으며 (윤진, 1984) 인지발달이나 사회적 경험등의 요소와 깊이 관련된다 하겠다.

Youniss(1978)는 동료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할 때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관계의 형성과 유지, 갈등·위기상태에서 관계를 교정하는 방식, 관계의 강도, 관계의 종결 및 관계양상의 변화를 지적하였으며, Selman(1981)은 우정관계 영역에서의 문제점으로 우정관계 형성, 친밀감, 신뢰, 질투, 갈등과 그 해결 및 종결을 제시함으로써 우정관계에 있어서 과정을 강조하였다. Damon (1977) 역시 우정관계의 주요문제로써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시작되며 유지되는지, 어떤 원인들로 배척당하는지, 그리고 이미 확립된 우정관계가 어떻게 깨어지는지 등을 살펴본 바 있다. Berndt는 1) 친구들이 얼마나 서로에 대해 알며 친밀한지 2) 서로의 욕구와 소망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3) 친구사이에 어느정도의 유사성/보상성이 존재하는지 및 4) 우정관계는 얼마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지의 문제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1982).

그러므로 우정관계에 있어 주요문제(영역)는 우정에 대한 아동들의 개념, 관계의 형성과 유지, 갈등, 종결, 그리고 회복등 그 과정의 양상으로 압축될 수 있다.

Ⅲ. 연 구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내 강동구와 마포구에 소재한 2개 국민학교에 다니는 아동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학년당 100명씩 총 600명이며 남녀동수이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우정관계의 4개 영역, 즉 아동의 우정에 대한 정의, 우정관계의 형성원인, 친구에 대한 기대 및 우정관계 종결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Bigelow(1975, 1977)의 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5개의 개방형 질문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부록〉 참조).

3. 연구절차

A. 예비조사

본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검사도구의 적절성 및 소요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국민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남녀아동 6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 Bigelow(1977)의 21범주를 우리나라 아동의 반응에 적합하도록 22개 범주로 수정·보완하였는데 '타인의 개입'이란 범주를 첨가하였다.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전반적인 지시 전달을 포함하여 개별면접(국민학교 1·2학년)의 경우 15-18분이, 질문지(3~6학년)의 경우 20분이 소요되었다.

B. 본조사

본조사는 1984년 7월 9일부터 7월 11일사이에 실시하였다. 1·2학년생들은 아동학을 전공하는 5명의 대학원생이 개별면접하였으며 3~6학년생들을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집단으로 질문지에 답하였다.

4. 자료처리

A. 내용분석

내용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각 아동의 반응을 문맥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분석의 단위는 구나 문장등 지적 사고 단위(intelligible thought units)로 인정되는 일련의 단어들이었다. 분석범주는 Bigelow(1977)에 기초한 22개의 범주였다.

범주항목은 1) 근접성 2) 공유활동 3) 일반적 놀이 4) 조직화된 놀이 5) 태도·가치의 유사성 6) 인구학적 유사성 7) 공통관심 8) 서로 좋아함 9) 이타주의 : 친구가 도움받기 10) 이타주의 : 친구가 드움주기 11) 물질적 이타주의 : 친구가 도움받기 12) 물질적 이타주의 : 친구가 도움주기 13) 자아강화 14) 자극적 가치로서의 친구 15) 친밀가능성 16) 진실성 17) 수용 18) 성격에 대한 경탄 19) 충성과 헌신 20) 오랜 상호작용의 결과 21) 평가적 차원 22) 타인의 개입이다.

B. 내용분석의 신뢰도

내용분석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정자내 신뢰도 및 아동학을 전공하는 한 명의 보조연구자와 본연구자간의 평정자간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이때 사용된 공식은 전체 코딩사례에 대한 코딩상의 일치의 比이다.

각 학년마다 남녀 각 5명씩 총 60명의 아동을 추출하여 이들의 문항별 반응에 대한 신뢰도를 계산한 결과, 평정자내 신뢰도는 .91에서 .95였으며 평정자간의 신뢰도는 .79에서 .87이었다.

C.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의 검증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우정관계를 구성하는 각 영역별 아동의 반응을 22개 범주로 구분한 후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전반적 경향을 살펴 보았다. 또한 각 아동의 분석범주별 빈도수

를 빈도위계에 따라 1～4점으로 할당하였다.* 이러한 점수화방법은 Bigelow(1977)의 분석체계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사용한 것이다.

둘째, 우정관계의 구성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문항의 22범주를 요인분석하였다.** 요인분석에서는 먼저 principal factoring with interaction을 하되 요인수는 4개로 고정하여 추출하였고 varimax rotation을 적용하였다. 이 결과 추출된 구성요인들은 우정관계의 주요영역별로 비교되었다.

Ⅳ.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Ⅰ장에서 제기한 문제별로 분석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1. 우정관계에 대한 정의의 구성요인

요인분석에 앞서 아동들이 반응한 우정관계 정의의 범주별 빈도와 비율분포를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1> 우정관계 정의의 범주별 빈도 및 백분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내용분석 범주	근접성	공유활동	일반적 놀이	조직화된 놀이	태도·가치의 유사성	인구학적 유사성	공통관심	서로 좋아함	이주 타의 친구가 도움받기	이주 타의 친구가 도움주기	물질적 타의 친구가 도움받기	물질적 타의 친구가 도움주기	자아강화	자극가치로서의 친구	친밀가능성	진실성	수용	성격에 대한 경탄	충성과 헌신	오랜 상호작용의 결과	평가적 차원	타인의 개입	계
빈도	4	200	17	4	24	25	19	353	90	323	8	44	186	36	48	41	34	45	102	2	165	0	1705
백분율	00	12	01	00	01	01	01	21	05	19	00	03	11	02	03	02	02	03	06	00	10	00	103

* 빈도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되 가장 빈번히 사용된 한 개의 범주에 4점으로부터 전혀 반응되지 않은 범주들에는 1점을 할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명확히 점수화되지 않는 경우들을 참작하여 가장 빈번히 반응된 범주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빈도수가 전체 빈도수의 25%를 초과하여 50%미만인 경우에는 3점으로, 25%이하인 경우에는 2점으로 처리하였다. 또 빈도수에 따라 3점 및 2점을 주되, 중복되는 빈도의 경우에는 남은 빈도의 50%를 초과할 때 3점으로, 남은 빈도의 50% 이하인 때에는 2점으로 처리하였다.

** 우정에 대한 정의와 형성원인의 2영역에서는 22개 범주가 포함되었다. 친구에 대한 기대와 우정관계 종결원인 영역에서는 피험자가 반응을 한 각각 20개와 19개 범주만 요인분석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구를 정의함에 있어 아동은 서로 좋아함(21%), 이타주의 : 친구가 도움주기(19%), 공유활동(12%), 자아강화(11%), 평가적 차원(10%), 충성과 헌신(6%)의 순서로 반응하였으며, 이러한 6개 범주가 전체의 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에 대한 아동의 정의는 어떠한 요인들로 구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22개 범주들간의 상호상관계수를 기초로 Principal factoring with interaction과 varimax rotation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요인의 수는 4개로 한정하였다(<표 2> 참조).

<표 2> 우정관계 정의의 요인행렬표

요인 / 범주	회전 전					회전 후			
	요인Ⅰ	요인Ⅱ	요인Ⅲ	요인Ⅳ	h^2	요인Ⅰ	요인Ⅱ	요인Ⅲ	요인Ⅳ
1. 근접성	.06	.17	.27	-.03	.10	-.00	.00	.31	.08
2. 공유활동	.38	.30	-.09	-.59	.59	-.22	.03	.02	.74
3. 일반적 놀이	.04	.04	-.04	-.07	.01	-.01	-.01	-.02	.09
4. 조직화된 놀이	.04	.15	.14	-.11	.06	.01	.02	.18	.16
5. 태도·가치의 유사성	-.08	.03	-.05	.07	.02	.09	-.05	-.03	-.05
6. 인구학적 유사성	.02	.05	.02	.04	.01	.00	-.06	.04	-.00
7. 공통관심	.05	.13	.01	-.10	.03	.01	-.03	.06	.16
8. 서로 좋아함	.65	-.77	.10	-.00	1.02	-.93	.25	-.15	-.27
9. 이타주의 : 친구가 도움받기	-.29	-.22	.12	-.09	.15	.14	.33	-.02	-.15
10. 이타주의 : 친구가 도움주기	-.74	-.27	.17	-.25	.72	.51	.65	-.06	-.19
11. 물질적이타주의 : 친구가 도움받기	.13	.20	.67	.10	.52	-.08	.02	.71	-.06
12. 물질적이타주의 : 친구가 도움주기	.13	.12	.42	.10	.21	-.10	-.02	.45	-.06
13. 자아강화	-.24	.04	-.02	.01	.06	.23	.05	-.02	-.04
14. 자극적 가치로서의 친구	.02	.14	-.10	.13	.05	.05	-.20	-.02	-.00
15. 친밀가능성	-.16	.03	-.06	.12	.05	.17	-.06	-.05	-.10
16. 진실성	-.00	.09	-.10	.20	.06	.06	-.21	-.03	-.08
17. 수 용	-.13	-.04	-.02	.05	.02	.10	.03	-.04	-.09
18. 성격에 대한 경탄	.03	.10	-.07	.17	.05	.03	-.20	.00	-.05
19. 충성과 헌신	-.07	-.01	-.02	.14	.02	.06	-.07	-.01	-.13
20. 오랜 상호작용의 결과	.01	.04	-.02	.05	.00	.01	-.07	.00	-.01
21. 평가적 차원	.24	.24	-.19	.16	.18	-.08	-.40	-.03	.11
22. 타인의 개입	.02	.04	-.02	-.07	.01	-.00	.00	-.00	.09
고유치	1.42	1.03	.84	.63					
설명변량 (%)	36.1	26.3	21.5	16.0					

축회전후의 결과에서 가장 높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내는 범주들을 중심으로 각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Ⅰ에서는 서로 좋아함(-.93)과 이타주의 : 친구가 도움주기(.51) 범주가 높은 부하량을 보이며 자아강화(.23)범주도 어느정도 이 요인에 기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요인Ⅰ은 서로 좋아함 對 이타주의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설명변량은 36.1%이다.

둘째, 요인Ⅱ에는 이타주의 : 친구가 도움받기(.33)와 이타주의 : 친구가 도움주기(.65)범주 및 평가(-.40)범주가 높은 부하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요인Ⅱ는 평가 對 이타주의의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설명변량은 26.3%이다.

세째, 요인Ⅲ에는 근접성(.31), 물질적 이타주의 : 친구가 도움받기(.71), 물질적 이타주의 : 친구가 도움주기(.45)범주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요인Ⅲ은 물질적 이타주의와 관련된 요인으로 생각되며 설명변량은 21.5%이다.

네째, 요인Ⅳ에는 공유활동(.74) 범주가 높은 부하량을 보이며 설명변량은16.0%인 바, 공유활동으로 대표되는 요인이라 하겠다.

2. 우정관계 형성원인의 구성요인

각 아동들이 반응한 우정관계 형성원인에 있어 범주별 빈도와 비율분포를 살펴보면 <표3>과 같다.

<표3> 우정관계 형성원인의 범주별 빈도 및 백분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내용분석 범주	근접성	공유활동	일반적 놀이	조직화된 놀이	태도·가치의 유사성	인구학적 유사성	공통관심	서로좋아함	이타주의		물질적 이타주의		자아강화	자극적가치로서의 친구	친밀가능성	진실성	수용	성격에 대한 경탄	충성과 헌신	오랜 상호작용의 결과	평가적 차원	타인의 개입	계
									친구가 도움받기	친구가 도움주기	친구가 도움받기	친구가 도움주기											
빈도	544	655	44	65	50	29	73	149	46	207	23	127	102	114	17	19	61	55	30	269	218	132	3029
백분율	18	22	01	02	02	01	02	05	02	07	01	04	03	04	01	01	02	02	01	09	07	04	101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들은 친구가 되는 이유로서 주로 공유활동(22%)과 근접성(18%)을 답하고 있어 전체 범주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오랜 상호작용의 결과, 평가적 차원, 이타주의 : 친구가 도움주기. 서로 좋아함, 소개나 권유등 타인의 개입, 물질적으로 도움받기, 자극가치, 자아강화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정관계 형성원인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범주들간의 상호상관계수를 산출하고 이것을 요인분석하였는데 이때에도 범주들간의 상호상관계수를 기초로 principal factoring with interaction을 실시하되 요인의 수는 4개로 추출하였으며 이것을 축회전한 결과는 <표4>와 같다.

<표4> 우정관계 형성원인의 요인행렬표

요인 / 범주	회전전 요인Ⅰ	요인Ⅱ	요인Ⅲ	요인Ⅳ	h^2	회전후 요인Ⅰ	요인Ⅱ	요인Ⅲ	요인Ⅳ
1. 근접성	-.27	-.61	.14	-.03	.46	-.34	-.40	-.28	-.33
2. 공유활동	-.70	.58	.24	.18	.93	-.33	.85	-.29	-.04
3. 일반적 놀이	-.05	.04	-.07	-.07	.01	-.04	.02	-.03	.11
4. 조직화된 놀이	-.12	.07	-.03	-.04	.02	-.08	.08	-.06	.07
5. 태도·가치의 유사성	.20	-.01	.14	-.10	.07	.25	-.07	-.05	-.05
6. 인구학적 유사성	.00	-.07	.03	.05	.01	-.02	-.04	.02	-.08
7. 공통관심	-.06	.00	.04	-.01	.00	-.03	.03	- 05	-.02
8. 서로 좋아함	.13	.02	-.13	.26	.10	-.02	.02	.31	-.05
9. 이타주의 : 친구가 도움받기	.11	-.04	-.20	.34	.17	-.11	-.01	.39	-.06
10. 이타주의 : 친구가 도움주기	.38	.08	-.24	.30	.30	.14	-.03	.53	.03
11. 물질적이타주의 : 친구가 도움받기	-.06	.12	-.22	-.20	.11	-.05	.01	-.04	.32
12. 물질적이타주의 : 친구가 도움주기	-.04	.17	-.49	-.30	.37	-.09	-.04	.04	.59
13. 자아강화	.31	.13	.02	-.03	.12	.31	-.00	.13	.05
14. 자극적 가치로서의 친구	.25	.14	.09	-.02	.09	·28	.05	.07	-.00
15. 친밀가능성	.18	.04	.08	-.05	.04	·20	-.02	.02	-.01
16. 진실성	.19	.10	.15	-.02	.07	·25	.05	.01	-.06
17. 수 용	.21	.04	.10	-.06	.06	·24	-.04	.01	-.02
18. 성격에 대한 경탄	.30	.16	.14	-.12	.15	·38	.03	.00	.03
19. 충성과 헌신	.13	-.03	-.02	.15	.04	·05	-.03	.17	-.08
20. 오랜 상호작용의 결과	-.04	-.39	.04	.04	.15	-·15	-.30	-.05	-.20
21. 평가적 차원	.52	.13	.25	-.09	.35	·58	-.03	.08	-.08
22. 타인의 개입	-.18	-.07	-.05	-.13	.05	-·14	-.05	-.16	.08
고유치	1.49	1.02	.66	.52					
설명변량(%)	40.4	27.7	17.8	14.1					

축회전후의 결과에서 가장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범주들을 중심으로 각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Ⅰ에는 근접성(-.34)과 공유활동(-.33)이 양호한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반면 수용(.24), 태도·가치의 유사성(.25), 진실성(.25), 자극적 가치로서의 친구(.28), 자아강화(.31), 성격에 대한 경탄(.38) 및 평가적 차원의 범주(.58)등이 높은 부하량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요인Ⅰ은 상황적 결과 對 여러 조건들을 고려하는 복합적 평가의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설명변량은 40.4%이다.

둘째, 요인Ⅱ에는 근접성(-.40)과 오랜 상호작용의 결과(-.30)범주가 기여하고 있지만 공유활동(.85)범주가 특히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이므로 구조적 차원 對 공유활동의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설명변량은 27.7%이다.

세째, 요인Ⅲ에서는 서로 좋아함(.31), 이타주의 : 친구가 도움받기(.39), 이타주의 : 친구가 도움주기(.53)범주가 이 요인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타주의 요인이라 하겠다. 근접성과 공유활동도 어느정도 이 요인에 기여하고 있으며 설명변량은 17.8%이다.

네째, 요인Ⅳ에서는 근접성범주가 -.33의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반면, 물질적 이타주의가 .32와 .59의 높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내고 있다. 14.1%의 설명변량을 가지며 물질적 이타주의로 대표되는 요인이라 부를 수 있다.

3. 친구에 대한 기대의 구성요인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들이 친구에게 기대하는 바를 범주별로 제시한 빈도 및 비율분포는 <표5>와 같다.

<표5> 친구에 대한 기대의 범주별 빈도 및 백분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내용분석 범주	근접성	공유활동	일반적 놀이	조직화된 놀이	태도·가치의 유사성	인구학적 유사성	공통관심	서로 좋아함	이타주의 친구가 도움받기	이타주의 친구가 도움주기	물질적 이타주의 친구가 도움받기	물질적 이타주의 친구가 도움주기	자아강화	자극적 가치로서의 친구	친밀가능성	진실성	수용	성격에 대한 경탄	충성과 헌신	오랜 상호작용의 결과	평가적 차원	타인의 개입	계
빈도	50	469	30	19	12	2	50	719	27	240	6	74	128	96	11	26	64	298	277	0	92	0	2690
백분율	02	17	01	01	00	00	02	27	01	09	00	03	05	04	00	01	02	11	10	00	03	00	99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들이 친구에게 기대하는 바는 서로 좋아함(27%), 공유활동(17%), 성격에 대한 경탄(11%), 충성과 헌신(10%), 이타주의 : 친구가 도움주기(9%) 및 자아강화, 자극적 가치, 전반적 평가의 차원, 물질적 이타주의 : 친구가 도움주기의 순서였으며 전체의 89%를 포함한다.

친구에게 기대하는 바에 있어 구성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오랜 상호작용의 결과, 타인의 개입이란 2범주를 제외한 20개 범주들간의 상호상관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4개의 요인을 추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때에도 principal factoring with interaction 및 varimax로 축회전하였다.

<표 6> 친구에 대한 기대의 요인행렬표

요인 / 범주	회전 전 요인Ⅰ	요인Ⅱ	요인Ⅲ	요인Ⅳ	h^2	회전 후 요인Ⅰ	요인Ⅱ	요인Ⅲ	요인Ⅳ
1. 근접성	.03	-.02	.00	.06	.00	.05	-.03	-.03	.03
2. 공유활동	-.18	.57	-.50	.26	.68	.19	.61	-.43	-.30
3. 일반적 놀이	-.03	.12	.01	.03	.02	-.00	.12	-.02	.02
4. 조직화된 놀이	-.01	.08	-.03	-.03	.01	.00	.08	.01	-.04
5. 태도·가치의 유사성	.07	.05	-.03	-.02	.01	.07	.03	.04	-.02
6. 인구학적 유사성	-.02	-.00	.05	.01	.00	-.03	-.00	.00	.04
7. 공통관심	.01	.15	-.00	-.01	.02	.03	.14	.03	-.00
8. 서로 좋아함	-.93	-.35	.07	-.05	1.00	-.89	-.19	-.40	-.10
9. 이타주의 : 친구가 도움받기	.02	-.02	.25	.21	.11	-.00	-.02	-.06	.33
10. 이타주의 : 친구가 도움주기	.11	.07	.56	.46	.55	.07	.05	-.08	.73
11. 물질적이타주의 : 친구가 도움받기	-.00	.03	-.01	.02	.00	.01	.03	-.01	.00
12. 물질적이타주의 : 친구가 도움주기	-.05	.12	-.02	.05	.02	-.00	.12	-.06	.00
13. 자아강화	.12	.04	.09	-.11	.03	.04	.01	.18	.04
14. 자극적 가치로서의 친구	.10	.14	.07	-.07	.04	.06	.12	.15	.03
15. 친밀가능성	.09	-.02	.04	-.16	.04	.01	-.04	.18	-.04
16. 진실성	.14	-.07	-.01	-.15	.05	.06	-.10	.17	-.07
17. 수 용	.08	-.04	.04	-.12	.02	.00	-.06	.14	-.02
18. 성격에 대한 경탄	.22	-.02	.09	-.35	.18	.04	-.07	.41	-.08
19. 충성과 헌신	.33	-.69	-.39	.30	.83	.44	-.72	-.31	-.15
20. 평가적 차원	.06	.05	.06	-.14	.03	.01	.03	.16	-.01
고유치	1.15	1.01	.82	.65					
설명변량 (%)	31.6	27.8	22.6	18.0					

축회전후의 결과에서 가장 높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내는 범주들을 중심으로 각 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Ⅰ에는 충성과 헌신(.44)범주가 기여하고 있으나 서로 좋아함(-.89) 범주가 대치적으로 높은 요인부하량을 가지는 바 이는 지속성과 몰입 정도에서 비교되어질 수 있다. 즉 충성과 헌신범주는 지속성과 깊이를 가지고 서로가 좋아함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요인Ⅰ은 상호관계와 관련된 요인이라 말할 수 있으며 설명변량은 31.6%이다.

둘째, 요인Ⅱ에는 충성과 헌신(-.72), 공유활동(.61)범주가 높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요인Ⅱ는 충성과 헌신으로 자신과 함께 지내기를 기대하는 공유활동 對 충성과 헌신의 요인이라 보여지며 전체변량의 27.8%를 설명한다.

세째, 요인Ⅲ에서는 개인적 성격특성에 대한 경탄(.41)범주와 공유활동(-.43), 서로 좋아함(-.40), 충성과 헌신(-.31)범주가 대치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바, 독점적 공유활동 對 성격에 대한 경탄의 요인이며 설명변량은 22.6%이다.

네째, 요인Ⅳ는 공유활동(-.30), 이타주의 : 친구가 도움받기(.33), 이타주의 : 친구가 도움주기(.73)범주로 대표되는 상호적 이타주의 요인이며 설명변량은 18.0%이다.

4. 우정관계 종결원인의 구성요인

우정관계 종결원인에 있어 성격에 대한 실망(28%), 서로 좋아하지 않음(26%), 전학·이사·분반등 물리적 이별(14%)의 이유가 전체 범주의 68%에 해당되었고 수용, 태도·가치의 유사성, 충성과 헌신등 심리적 이유 및 공유활동범주가 그 다음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인구학적 유사성, 물질적 이타주의 : 친구가 도움받기 및 오랜 상호작용의 결과때문에 우정관계가 깨어진다고 반응한 아동은 한 명도 없었다. 이에대한 빈도 및 백분율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우정관계 종결원인의 빈도 및 백분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내용분석범주	근접성	공유활동	일반적 놀이	조직화된 놀이	태도·가치의 유사성	인구학적 유사성	공통관심	서로 좋아함	이타주의 친구가 도움받기	이타주의 친구가 도움주기	물질적 이타주의 친구가 도움받기	물질적 이타주의 친구가 도움주기	자아강화	자극적 가치로서의 친구	친밀가능성	진실성	수용	성격에 대한 경탄	충성과 헌신	오랜 상호작용의 결과	평가적 차원	타인의 개입	계
빈도	221	55	1	5	81	0	6	394	4	31	0	30	18	2	16	21	142	423	64	0	17	6	1537
백분율	14	04	00	00	05	00	00	26	00	02	00	02	01	00	01	01	09	28	04	00	01	00	98

우정관계 종결원인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19개 범주들간의 상호상관계수를 산출하고 이것을 기초로 principal factoring with interaction, varimax rotation 하여 추출한 4개의 요인은 <표 8>과 같다.

<표 8> 우정관계 종결원인의 요인행렬표

요인 / 범주	회전전 요인Ⅰ	요인Ⅱ	요인Ⅲ	요인Ⅳ	h^2	회전후 요인Ⅰ	요인Ⅱ	요인Ⅲ	요인Ⅳ
1. 근접성	-.89	.32	-.33	-.01	1.00	-.60	.32	.63	-.38
2. 공유활동	-.06	-.05	.14	.19	.06	-.08	.01	.04	.23
3. 일반적 놀이	.05	.03	-.05	.01	.01	.07	.01	.02	-.02
4. 조직화된 놀이	.00	-.05	.09	.16	.04	-.01	-.01	.03	.19
5. 태도·가치의 유사성	.05	.04	.21	-.19	.08	-.06	.07	-.27	-.03
6. 공통관심	-.03	-.01	.01	.03	.00	-.03	.00	.02	.03
7. 서로 좋아함	.05	-.79	-.35	-.04	.75	.00	-.85	.13	-.05
8. 이타주의 : 친구가 도움받기	.01	-.00	.09	.21	.05	.02	.04	.06	.22
9. 이타주의 : 친구가 도움주기	.01	-.02	.08	.28	.09	.03	.03	.11	.27
10. 물질적이타주의 : 친구가 도움주기	.01	-.07	.14	.21	.07	-.02	-.01	.01	.26
11. 자아강화	.02	-.04	.06	.06	.01	.00	-.02	-.01	.09
12. 자극적 가치로서의 친구	.02	.05	.01	-.00	.00	.03	.05	-.01	-.01
13. 친밀가능성	.07	.08	.16	-.13	.05	-.00	.10	-.21	-.02
14. 진실성	.04	.01	-.01	.02	.00	.04	-.00	.01	.01
15. 수 용	.11	.00	.17	-.37	.18	-.04	.00	-.38	-.18
16. 성격에 대한 경탄	.73	.43	-.43	.07	.90	.91	.20	.06	-.20
17. 충성과 헌신	.00	.09	.26	.08	.08	-.06	.16	-.13	.19
18. 평가적 차원	-.01	-.03	.11	.02	.01	-.05	.01	-.05	.08
19. 타인의 개입	-.07	.03	-.04	-.04	.01	-.05	.02	.04	-.07
고유치	1.36	.94	.66	.44					
설명변량 (%)	40.0	27.6	19.5	13.0					

축회전후의 결과에서 가장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범주들을 중심으로 각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Ⅰ에는 근접성(-.60)과 성격에 대한 경탄(.91)범주가 높은 부하량을 보이며 대치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요인Ⅰ은 물리적 이별 對 성격에 대한 실망의 요인이라 사료되며 설명변량은 40.0%이다.

둘째, 요인Ⅱ에서는 근접성(.32)범주가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으나 싸움이나 갈등으로 인해 우정관계가 종결됨을 나타내고 있다(-.85). 그러므로 이 요인은 다툼위주의 갈등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설명변량은 27.6%이다.

세째, 요인Ⅲ에서는 근접성(.63)범주와 친밀가능성(-.21), 태도·가치의 유사성(-.27), 수용(-.38)범주가 대치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요인Ⅲ은 물리적 이별 對 심리적 차원과 관련된 요인이며 전체변량의 19.5%를 설명하고 있다.

네째, 요인Ⅳ는 근접성(-.38)범주가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반면, 이타주의:친구가 도움받기(.22), 이타주의:친구가 도움주기(.27), 물질적 이타주의:친구가 도움주기(.26)의 범주가 각각 양호한 요인 부하량을 가지며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요인Ⅳ는 일반적 이타주의 요인으로 생각되며 설명변량은 13.0%이다.

앞의 결과들을 토대로 아동의 우정관계에 대한 영역별 구성요인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표9>와 같다.

<표9> 우정관계의 영역별 구성요인 비교

요인 / 영역	요 인 Ⅰ	요 인 Ⅱ	요 인 Ⅲ	요 인 Ⅳ
우정관계에 대한 정의	서로좋아함對 이타주의요인	평가 對 이타주의 요인	물질적 이타주의 요인	공유활동 요인
우정관계 형성원인	상황적 결과 對 복합적 평가 요인	구조적 차원 對 공유활동 요인	이타주의요인	물질적 이타주의 요인
친구에 대한 기대	상호관계요인	공유활동 對 충성과 헌신 요인	독점적 공유활동 對 성격에 대한 경탄요인	상호적 이타주의 요인
우정관계 종결원인	물리적 이별 對 성격에 대한 실망요인	갈등요인	물질적 이별 對 심리적 차원의 요인	일반적 이타주의 요인

이와같은 결과로 볼 때 우정관계의 제영역은 각각 상이한 요인들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우정관계를 4개 영역별 구성요인에 따라 다루었다. 왜냐하면 기존의 연구들이 이러한 영역들중 한 두 영역만을 중점적으로 하여 우정관계를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를 보면 우정관계에 대한 정의, 형성원인, 친구에 대한 기대 및 종결원인은 각각 상이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우정관계를 연구함에 있어 이 모든 측면은 개별적으로 혹은 통합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친구에 대한 정의 및 기대에서는 이타주의 요인외에 서로 좋아함, 충성과 헌신 등 상호성이 기본을 이루는 반면, 형성 및 종결원인에서는 근접성등 물리적 요인과 성격등에 대한 평가적 요인이 이타주의 요인과 함께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질문의 내용에 있어서 전자가 일반적·추상적 이해에 기초하는 질문이라고 할 때, 후자는 우정관계의 실제적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는 실제 우정관계 형성에서는 유사성 차원이 가장 중요시된 반면, 이상적 우정관계에서는 유사성보다 상호성이 더 중시됨을 보고한 Lowenthal과 그의 동료들(1975)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둘째, 친구에 대한 지식 및 우정관계 개념이 인지적 발달과 사회적 경험 모두를 통해 결정된다는 주장(Diaz & Berndt, 1982; Rubin, 1982)에 비추어 볼 때 친구에 대한 정의 및 기대는 인지적 발달의 측면과 깊이 관련되며, 우정관계 형성 및 종결원인은 인지발달보다는 특정 친구와의 경험을 통해 강한 영향을 받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심리적 요인들이 뚜렷이 부각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대상이 갖는 연령상의 제한점 때문일 수 있다. Bigelow와 La Gaipa(1975), Reismen 과 Shorr(1978), Selman(1981) 등에 의하면 내적·심리적 요인으로 간주되는 진실성, 친밀가능성, 공통관심 및 태도·가치의 유사성 범주가 모두 6·7학년 이후에 발달한다고 하므로 본 연구의 대상인 국민학교 1~6학년보다 높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연구가 요청된다.

또 본 연구중 우정관계의 형성 및 종결원인에서 '타인의 개입'이란 새로운 범주가 첨가되었을 뿐 아니라 근접성이라는 구조적 차원이 모든 연령에서 자주 언급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자아강화를 강조한 Bigelow와 La Gaipa(1980)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이는 이 분야 연구시 문화 및 사회적 경험이 다르면 우정관계에 대한 개념도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한 Rubin(1982)의 주장을 고려해 볼 때 비교문화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아동의 반응을 분석하였으므로 아동의 이해와 표현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아동이 실질적인 상황 및 개념을 표현하기보다 제한된 어휘력의 범위내에서 이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학령기 아동만을 대상으로 연구할 결과, 우정관계에 있어 심리적 요인들이 경시되었다는 점이다.

세째, 아동의 반응빈도를 점수화함에 있어 자주 언급됨(반응빈도)이 중요함을 나타낸다는 가정하에 일정한 규준에 의해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점수간에 절대적인 동간성이 존재하였던가는 의문스러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첫째, 우리나라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우정관계에 대한 개념을 연구함으로써 동료 및 우정관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둘째, 동일한 아동을 대상으로 우정관계의 제영역을 동시에 구체적 구성요인별로 비교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보다 진전된 우정관계의 추후연구를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정관계에 대한 개념이 인지발달, 언어발달 및 사회적 경험에 기인하여 변화한다는 주장에 기초하여 다양한 연령대상을 종단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우정관계의 전반적인 발달 및 개인차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정관계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려는 기술(記述)위주의 정보제공 뿐 아니라 실제적인 우정관계의 양상 및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함께 연구해야 할 것이다. 세째, 우리나라 아동에게 적합한 우정관계 개념의 내용분석 범주가 요청된다. 네째, 우정관계를 다룸에 있어 아동의 표현능력에 영향받지 않는 비언어적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한 점이다.

2. 결 론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와 얻어진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정관계의 제영역이라 볼 수 있는 우정관계에 대한 정의, 형성원인, 친구에 대한 기대 및 종결원인은 각각 상이한 요인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의 우정관계에 대한 정의는 서로 좋아함 對 이타주의 요인, 전반적 평가 對 이타주의 요인, 물질적 이타주의요인 및 공유활동요인으로 구성된다.

2) 우정관계 형성원인은 상황적 결과 對 복합적 평가요인, 구조적 차원 對 공유활동요인, 이타주의 및 물질적 이타주의요인으로 구성된다.

3) 친구에 대한 기대는 상호관계 요인, 공유활동 對 충성과 헌신요인, 독점적 공유활동 對 성격에 대한 경탄요인, 상호적 이타주의 요인으로 구성된다.

4) 우정관계 종결원인은 물질적 이별 對 성격에 대한 실망요인, 물질적 이별 對 심리적 차원요인, 갈등요인 및 일반적 이타주의 요인으로 구성된다.

참 고 문 헌

윤 진. (1984).우정관계의 본질과 발달 단계에 따른 변화. 사회심리학 연구. 2 (1), 94-113.

이승희.(1982).국어대사전.서울 : 민중서림.

Asher, S.R.(1983). Social competence and peer status : Recent advances and future directions. Child Development, 54, 1427--1434.

Asher, S.R., Oden, S.L.,& Gottman, J.M. (1977). Children's friendships in school settings. In L.G.Katz (Ed.), Current Topic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 pp. 33-61). New Jersey: Ablex Publishing Co.

Berndt, T.J.(1981). Relations between social cognition, nonsocial cognition, and social behavior : The case of friendship. In J.H. Flavell & L.Ross (Eds.),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 Frontiers and Possible Futures (pp. 176-199).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Berndt, T.J. (1982). The features and effects of friendship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 1447-1460.

Bigelow, B.J. (1977). Children's friendship expectations : A cognitive-developmental study. Child Development, 48, 246-253.

Bigelow, B.J.,& La Gaipa, J.J. (1975). Children's written descriptions of friendship : A multidimension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1, 857-858.

Bigelow, B.J., & La Gaipa, J.J. (1980). The development of friendship values and choice. In H.C. Foot, A.J. Chapman & J.R. Smith (Eds.), Friendship and Social Relations in Children (pp. 15-44). New York : John Wiley & Sons.

Cowan, P.A. (1984). Peers, not parents, are primary [Review of parents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 A Sullivan - Piaget perspective]. Contemporary Psychology, 29, 535-536.

Damon, W. (1977). The Social World of the Child. San 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Diaz, R.M., Berndt, T.J. (1982). Children's knowledge of best friend : Fact or 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18, 787-794.

Duck, S.W., & Spencer, C. (1972). Personal constructs and friendship 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3, 40-45.

Dweck, C.S. (1981). Social-cognitive processes in children's friendships. In S.R. Asher & J.M. Gottman (Eds.),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Friendships (pp.322-333).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Furman, W., & Bierman, K.L. (1983). Developmental changes in young children's conceptions of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54, 549-556.

Furman, W., & Bierman, K.L. (1984). Children's conceptions of friendship : A multimethod study of developmental change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925-931.

Gottman, J.M. (1983). How children become friend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8 (3, Serial No. 201).

Hartup, W.W. (1978). Children and their friends. In H. McGurk(Ed.), Issues in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pp. 130-170). London : Methuem.

Hartup, W.W. (1983). Peer relations. In P.H.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pp. 103-196). New York : John Wiley & Sons.

Hays, D.S. (1978). Cognitive bases for liking and disliking among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49, 906-909.

Hays, D.S., Gershman, E., & Bolin, L.J. (1980). Friends and enemies : Cognitive bases for preschool children's unilateral and reciproc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1, 1276-1279.

Hunter, F.T., & Youniss, J. (1982). Changes in functions of three relation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806-811.

Kurdek, L.A., & Krile, D. (1982). A developmental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peer acceptance and both interpersonal understanding and perceived social self-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3, 1485-1491.

Lowenthal, M.F., Thurnher, M., & Chiriboga, D. (1975). Four Stages of Life. San 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Mannarino, A.P. (1980).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friendships. In H.C. Foot, A.J. Chapman & J.R. Smith (Eds.), Friendship and Social Relations in Children (pp. 45-63). New York : John Wiley & Sons.

Masters, J.C., & Furman, W. (1981). Popularity, individual friendship selection, and specific peer interaction amo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44-350.

McGuire, K.D., & Weisz, J.R. (1982). Social cognition and behavior correlations of preadolescent chumship. Child Development, 53, 1478-1484.

McKinney, J.P., Fitzgerald, H.E., & Strommen, E.A. (1982). Developmental Psychology : The Adolescent and Young Adult. IIlinois : The Dorsey Press.

Newcomb, A.F., & Brady, J.E. (1982). Mutuality in boy's friendship relations. Child Development, 53, 392-395.

Oden, S. (1982). Peer relationship development in childhood. In L.G. Katz (Ed.), Current Topics in Early Chilhood Education (Vol. 4, pp. 87-117). New Jersey: Ablex Publishing Co.

Reisman, J.M., & Shorr, S.I. (1978). Friendship claims and expectations among children and adults. Child Developement, 49, 913-916.

Renshaw, P.D. (1981). The roots of peer interaction research : A historical analysis of the 1930s. In S.R. Asher & J.M. Gottman (Eds.),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Friendships (pp. 1-2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Rubin, Z. (1982). Children's Friendships.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Selman, R.L. (1981). The child as a friendship philosopher. In S.R. Asher & J.M. Gottman (Eds.),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Friendships (pp. 242-272).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Serafica, F.C. (1982). Conceptions of friendship and interaction between friends : An organismic -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F.C. Serafica (Ed.), Social - Cognitive Development in Context (pp. 100-132). New York : The Guiford Press.

Shaffer, D.R. (1979).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California : Wadsworth, Inc.

Shantz, C.U. (1983). Social cognition. In P.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3, pp.495-555). New York : John Wiley & Sons.

Sharabany, R., Gershoni, R., & Hofman, J.E. (1981). Girlfriend, boyfriend: Age and sex differences in intimate friend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17, 800-808.

Tesh, S.A. (1983). Review of friendship development across the life span. Human development, 26, 266-276.

Thornton, A., & Freedman, D. (1979). Changes in the sex role attitudes of women, 1962-1977 : Evidence from a panel stud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831-842.

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1973). Springfield, Massachusetts : G and C. Merriam.

Wright, P.H. (1969). A model and a technique for studies of friendship.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 295-309.